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은혜가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생명의 은혜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11/18 월요일

*아침의 누릴*

**딤후 1:6**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딤후 2:2**

2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1:3-4, 10**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0 음행하는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과 납치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위증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다른 모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딤후 6:3**

3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요점을 가르치는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딤후 1:6)과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2:1)에 연결하고 결합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이 두 절을 결합한다. 이 각각의  
절에서 주된 항목은 우리의 영과 은혜이다.

교회의 타락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영을 대단히 강조한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은혜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딤후 1:6-10).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축복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락시키는 흐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딤후 1:14)과  
장비시키는 말씀(딤후 3:16-17)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장로 훈련, 개정판,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9 장, 182-  
18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의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비통한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이다. 이  
은혜는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딤후 1:9),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은혜를  
사용한다.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신성한 생명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충분한 은혜(고후 12:9)이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성한 모든 실재들(진리들)을 지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건(딤후 4:7-  
8)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장로 훈련,  
개정판,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9 장, 183 쪽)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딤후 4:22)을 체험하지 않고 그 결과  
은혜의 임재를 잃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하락이다. ... 우리의 가장 높은 누림과 체험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곧 만물의

주권적인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 ...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안에서가 아니다. 그 영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 삼십여 년 전에 미국에 올 때 내게는 특별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 성도들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최근에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비결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그 영'(롬 8:16)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영께서 나의 영과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나이로 볼 때 내가 주님의 회복과 교회에 대한 부담을 짊어질 수 없음을 간증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내게 너무 많이 활동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즉시 나는 "오,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일어납니다."라고 말한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오, 주님,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걸을 뿐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당신은 제가 걷고 있는 동안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말한다.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 영이시고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축복이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누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잃는 순간 교회의 하락이 이미 온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3 장, 59-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3 장

11/19 화요일

### 아침의 누림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1:9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딤후 3:5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엡 4:23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고후 3:17-18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우리는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어느 부분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 무엇도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거나 확실할 수 없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고린도전서 6 장 17 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속부분인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이 함께 모여 연합되어 한 영이 된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연합된 영이 있다. 이 두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로마서 8 장 4 절은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영인가? 우리는 단지 성령만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만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한다. 이제 성령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 땅과 이 우주 가운데 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 이제 우리는 다만 이 놀라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3권, 사람의 영, 1장, 335-336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 영 안에 있는 것과 한 혼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우리는 한 영 안에 머물고 그런 다음 모두 한 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하여 함께 서려면 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형제들이 한 혼이 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파하려 함께 나간다면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캠퍼스에 있는 많은 젊은 형제들이 참으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생활을 위해 굳게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려 나갈 때 때때로 서로 다른 혼을 갖는다. 우리는 한 영 안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한 혼이 되어야 한다. ‘한 영 안에’ 있는 것은 서있기 위한 것이고, ‘한 혼’이 되는 것은 함께 움직이고 일하며 분투하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고전 15:45),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고후 3:17),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딤후 4:22),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고전 6:17) 나는 이 네 절을 좋아하며 이 절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사람의 영이 있다. 이 두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3권, 사람의 영, 6장, 384-385쪽)

1 장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결’이다. 이 일련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비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사로서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데 기술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비결’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용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각종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비결, 즉 뛰어난 기술을 배웠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이 여덟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결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그 영이다. 함께 일하는 이 두 영이 모든 영적인 것들, 특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이자 비결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하심’, 1장, 10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하심’, 1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3권, 사람의 영, 1, 6장

11/20 수요일

### 아침의 누림

눅 1:28, 30

28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시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벤전 5:10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 12:28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은혜에 대한 진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 누가는 주님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셨던 때를 기록하며 은혜를 언급한다 (눅 1:28, 30). ... 대부분의 번역본은 '은혜' 대신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이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은혜'이다.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위대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가 은총을 입거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은혜의 문제였다.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첫 번째 사례로 언급된 것은 원칙이 되는데, 신약에서 은혜의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가까이할 수 없는 곳에 계셨다(딤후 6:16).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방문하러 나오셨지만, 단 한 번도 방문하신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함께 음식을 드셨지만 그 후에 떠나셨다. 그분은 기드온에게 오셨다가 떠나셨다. 그분은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일시적인 방문에 불과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3 장, 96-9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 달랐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단지 마리아를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분은 마리아 안에 머무시려고 오셨다. 즉, 그녀의 육신의 태 안에 머물기 위해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 장 20 절은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방문하러 오셔서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 머무심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 곧 하나님-사람이 되실 놀라운 분을 잉태하도록 한 바로 그 본질이 되셨다. 육체 되심은 위대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 안에 머무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셔서 사람 안에 머무시고, 사람 안에 태어나시고, 사람과 하나 되시고, 심지어 사람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사람-구주를 잉태한 것이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언급된 곳이며,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심지어 우리가 되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정의를 사용하여 신약에서 은혜를 언급하는 모든 절을 해석할 수 있다.

누가복음 2 장은 어린 소년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 가셨다고 말한다(52 절). 어린 소년 예수님은 은혜가 자라 가셨다. ...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셔서 사람 안에 머무시고, 사람 안에 태어나시고, 사람과 하나 되시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행함이 온전한 소년이셨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 가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마리아가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입히신 은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눅 1:28, 30). 우리는 깊은 교통을 통해 이 중점을 연구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자라셨다(눅 2:40). 이것은 그분께서 은혜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라셨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사역에서 사람의 구주이신 그분은 은혜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셨다. 따라서 어린 사람이셨던 그분 자신께서 은혜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의 조형체이심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으로 조형되어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 빛, 거룩함, 의 등이시다. 그분은 무수히 많은 놀라운 항목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의 각 항목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여러 속성이 조형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서 자란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3 장, 97-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0-24 장*

### 11/21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 딤후 1:14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 갈 6:18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 빌 4:23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몬 25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결코 빈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여전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결과이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많은 사람이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설득되고 굴복되었으며 결국 사로잡혔다. 어느 날 팔십 세가 넘은 노년의 다비는 한 호텔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잠들기 전에 그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기적이다.

주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넘쳐서 그가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역동적이며 탁월한 구원을 받고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다(딤후 1:14).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역사에 따르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반대하는 사람에서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욱더 넘쳐서 그를 사도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 사도는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산출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2 장, 8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는 두 방면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다(딤후 1:14). 원래 다소의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주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주님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랑하게 되었다. ... 이것은 가장 큰 긍휼이며 참된 은혜이다. 단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믿음뿐 아니라 사랑도 필요하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 두 가지이다. 이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다는 것을 본다. 그 후 어느 날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들 중 하나는 ‘믿다’이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 장 12 절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사랑을 간청하셨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요 14:21, 23)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을 누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 주고 계셨던 것은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2장, 344-34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2장;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1/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3-14

1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으십시오.

14 그대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키십시오.

시 45:1-2

1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딤편 4:6

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딤편 6:20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지키며, 속되고 헛된 말과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반론을 피하십시오.

골 3:16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시 119:72

72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은 제게 금과 은 수천 닢보다 낫습니다.

행 5:20

20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벧전 3:7

7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그대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맡기신 것이며, 1장 12절에서 우리가 그분께 위임하여 맡긴 것과 대조된다. 1장 13절에 따르면, 여기에서 맡겨진 것은 건강한 말씀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저장하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을 포함한다.(딤후 1:14 각주 1)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롬 8:16).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성령을 통해 지키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딤후 1:14 각주 2) 오늘날 세계의 관심사는 온통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가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다른 방식은 항상 건강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건강한 말씀을

본보기로 붙잡을 것이다. ... 바울은 디모데 앞에서 이러한 본을 살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이 본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모든 성도가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아야 한다.(장로 훈련, 개정판, 6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9장, 177-1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은 디모데와 함께한 은혜에 대해 말하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킬 수 있었다. 디모데는 주로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 이제 디모데는 은혜로 그것을 지켜야 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용한 방법은 대조법, 즉 두 가지 것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었다. 바울 시대에는 대조법에 따른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지식이라고 규정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것에 사로잡혔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지주의의 대조법에서 나온 그러한 지식을 피하고 믿음에 있어서 표적을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2장, 83 쪽)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은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분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강해져서, 우리가 체험한 건강한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건강한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은 기적들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누린 건강한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겨 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많은 교사로 산출하려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의 말은 교회의 하락에 대항하는 예방접종이 될 것이다.(장로 훈련, 개정판,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9 장, 178 쪽)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장비되고 적셔지고 조성된 사람이시다. 그분은 실지적인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입을 여실 때 은혜가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3 장, 100-101 쪽)

시편 45 편 2 절은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라고 말한다. 이것은 은혜가 끊임없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에 관해 누가복음 4 장 22 절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랐다고 말한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 2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장로 훈련, 개정판,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9 장

11/23 토요일

### 아침의 누림

엡 4:29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벧전 4:10-11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마 12:34-35

34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35 선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행 20:24, 27-28, 32

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7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32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한다. 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교회 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청지기들로서 사람들 안으로 은혜를 분배했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 건축을 위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 (비교 엡 4:29). ... 에베소서 4 장 28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우리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생활 가운데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한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장, 4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 장 12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순수성은 신성한 속성이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나온 미덕이다. 이러한 미덕으로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덕으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또한 단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매우 단순하시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주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지만 또한

단순하고 단일한 분이셨다. 내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많이 누리는 이유는 그분께서 단일하시고 단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형제들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은 그들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복잡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께서 예라고 말씀하실 때 예를 의미하고, 아니요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희다거나 검다고 말씀하실 때 희거나 검은 것을 의미하며 회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시점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느낌이 어떠하든, 그분은 항상 단일하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 자신은 단순하시다.

오직 단일한 사람만이 관대한 사람이다. ... 우리 하나님은 단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넘치게 주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이 복잡하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주시하시고 여러분을 면밀히 점검하시기 원하는가? 그분께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하시기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점검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일하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바울은 단순하신 하나님과 같았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극도로 복잡했다. ... 바울의 양심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처신하였음을 증언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관대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기꺼이 줄 수 있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대할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관대하고 후한 마음으로 가득했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 시지 2, 20-22 쪽)

은혜는 요한계시록의 끝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끝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21 절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각 사람과 반드시 함께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영원한 표현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하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17-1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4 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9*

## 11/24 주일

### 아침의 누림

#### 고전 13:1-2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2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고전 14:1-6, 12, 31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2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며, 다만 자기 영 안에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5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통역해 주어 교회가 건축되도록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언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큰 것입니다.

6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단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신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12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인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